중학교 역사 ① · 세계사 · W28

# 다양한 이슬람 왕조의 성장

셀주크 튀르크 | 티무르 왕조 | 사파비 왕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살던 넓은 지역에는 여러 왕조가 등장했어요. 중앙아시아에서 성장한 셀주크 튀르크,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세운 티무르 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을 내세운 사파비 왕조가 대표적이에요. 이들은 어느 지역에서 성장했고, 무엇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또 사람들이 오가는 교역로에서는 어떤 문화가 발전했을까요?

**이 학습지의 순서**

1. **한눈에 보는 W28** · 연표와 지도로 큰 그림 잡기 · Q01 지역
2. ① **셀주크 튀르크** · 칼리프와 술탄 · 십자군 전쟁 · Q02~Q05
3. ② **티무르 왕조** · 몽골 제국의 부흥 · 중계 무역 · Q06~Q10
4. ③ **사파비 왕조** · 시아파 국교 · 아바스 1세 · Q11~Q16
5. **빈칸 정리 → 확인 문제 24 → 정답과 해설**

**대치동 재우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한눈에 보는 W28

### 세 왕조의 시기를 나란히 놓으면

막대의 끝은 세기 단위로 단순화했어요. 회색은 앞 단원의 참고 왕조예요.




**1501년 사파비 건국 당시, 티무르 왕조 일부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연표〉** 세 왕조가 성장한 시기를 나란히 놓았어요. 1501년에 사파비 왕조가 세워질 때 티무르 왕조의 일부 세력은 남아 있었어요. 셀주크 막대는 여러 셀주크 세력의 흐름을 함께 나타내요.

**왕조 색 약속**: 초록 = 셀주크 튀르크 / 파랑 = 티무르 왕조 / 자주 = 사파비 왕조. 같은 색은 뒤의 지도와 비교표에서도 같은 왕조를 뜻해요.

## 먼저 알아 둘 말

| 말 | 쉬운 뜻 |
|---|---|
| **왕조** | 한 집안이 왕위를 이어 가며 다스리는 나라 또는 그 왕실 |
| **제국** | 여러 지역과 사람들을 넓게 지배하는 나라 |
| **군주** | 왕이나 황제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배자 |
| **칭호** |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 부르는 이름. 예: 왕, 황제, 술탄 |
| **종파** | 같은 종교 안에서 지도자나 가르침을 이해하는 방식 등에 따라 나뉜 갈래 |
| **이슬람 세계** |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생활과 문화가 발달한 여러 지역 |
| **교역** | 지역이나 나라 사이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일 |

이슬람 세계의 넓은 지역에서는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왕조가 성장했어요. 같은 시기에 여러 왕조가 함께 존재하기도 했어요.

## 세 도시와 교역로의 위치

회색 점선: 오늘날 국경 / 권역은 학습용으로 대략 구분




서아시아: 바그다드 · 이스파한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

비단길의 대표 방향: 여러 갈래의 교역로 가운데 일부

도시 이름 색 = 그 도시와 연결되는 왕조 색

지역 구분은 역사 학습을 위한 범위이며, 국가의 영토를 뜻하지 않아요.

**〈지도 1〉** 바그다드·이스파한은 서아시아에, 사마르칸트는 중앙아시아에 있어요. 권역은 오늘날 나라를 바탕으로 묶은 학습용 구분이에요. 옅은 회색 점선은 오늘날의 국경이고, 교역로는 여러 갈래 가운데 대표 방향만 나타냈어요.

## Q01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는 어디인가요?

**답** 중앙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의 안쪽에 있는 넓은 지역이고, 서아시아는 아시아의 서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둘 다 한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지역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 낱말 풀이

| 낱말 | 쉬운 뜻 |
|---|---|
| **내륙** |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땅 안쪽 |
| **교역로** | 상인과 물건이 오가며 교역이 이루어지는 길 |

중앙아시아는 바다에서 떨어진 **내륙** 지역이며, 초원과 사막, 오아시스가 있어요. 유목민이 가축을 기르며 이동했고,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도시와 **교역로**도 발달했어요. 티무르 왕조의 수도가 된 **사마르칸트**는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도시예요.

서아시아에는 오늘날 이란·이라크 등이 있는 지역이 포함돼요. **바그다드**는 오늘날 이라크에, **이스파한**은 오늘날 이란에 있어요.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사이에는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길이 이어져 있었어요. **비단길(실크 로드)**은 중앙아시아를 지나 동서를 연결한 여러 갈래의 교역로예요. 〈지도 1〉의 선은 그중 대표 방향을 보여 줘요.

세 왕조는 이 넓은 지역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을 중심으로 성장했어요. 지도에서 도시의 위치와 왕조의 영역을 함께 보면 그 차이가 드러나요.

## ① 셀주크 튀르크 — 칼리프와 술탄은 어떻게 달랐을까?

| 왕조 신분증 | |
|---|---|
| 언제 | 11세기 중반 성장 |
| 누가 세웠나·대표 군주 | 셀주크 가문의 지배자들 |
| 어디서 |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지중해 방면으로 진출 |
| 연결해 기억할 도시 | 바그다드: 점령 후 칼리프에게 술탄 칭호를 인정받음 |
| 내세운 것 | 칼리프에게 인정받은 술탄의 지위 |
| 종파 | — |
| 핵심 낱말 3개 | 술탄 · 칼리프 · 십자군 |

'—'는 이 표에서 따로 다루지 않는다는 표시예요. 종파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 Q02 셀주크 튀르크는 어떤 사람들이 세운 나라였나요?

> **답** 중앙아시아의 **튀르크족(튀르크계 유목민)**이 세웠으며,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뒤 서아시아로 세력을 넓힌 나라예요.

**낱말 풀이**

| 낱말 | 쉬운 뜻 |
|---|---|
| **유목민** | 가축에게 먹일 풀과 물을 찾아 이동하며 생활하는 사람들 |
| **튀르크족** | 서로 관련된 튀르크 계통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여러 집단을 가리키는 말 |

셀주크 튀르크는 **11세기 중반**에 크게 성장했어요. 이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서쪽으로 진출하여 서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차지했어요.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도 점령했어요.

> **아바스 왕조**: 8세기 중엽에 성립하여 바그다드를 수도로 삼은 이슬람 왕조예요. 이 왕조의 지배자가 칼리프였어요.

## 셀주크 튀르크의 서쪽 진출

11세기 후반: 여러 셀주크 세력을 합친 주요 영역




셀주크 세력의 주요 영역: 경계는 단순화

비잔티움 제국의 주요 영역(11세기 후반)

바그다드: 1055년 점령 / 화살표: 진출 방향 (실제 이동 경로는 생략)

**〈지도 2〉** 셀주크 세력은 중앙아시아에서 서쪽으로 진출하여 1055년에 바그다드를 점령했어요. 초록색은 11세기 후반 셀주크 세력의 주요 영역을 단순화한 것이며, 바그다드와 예루살렘이 그 안에 있어요. 서북쪽으로 비잔티움 제국(동로마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과 맞닿았어요.

당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이슬람 세계에서 권위를 지니고 있었지만, 실제로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힘은 약해져 있었어요. 셀주크의 지배자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실권을 잡고, 칼리프에게서 **술탄**이라는 칭호를 인정받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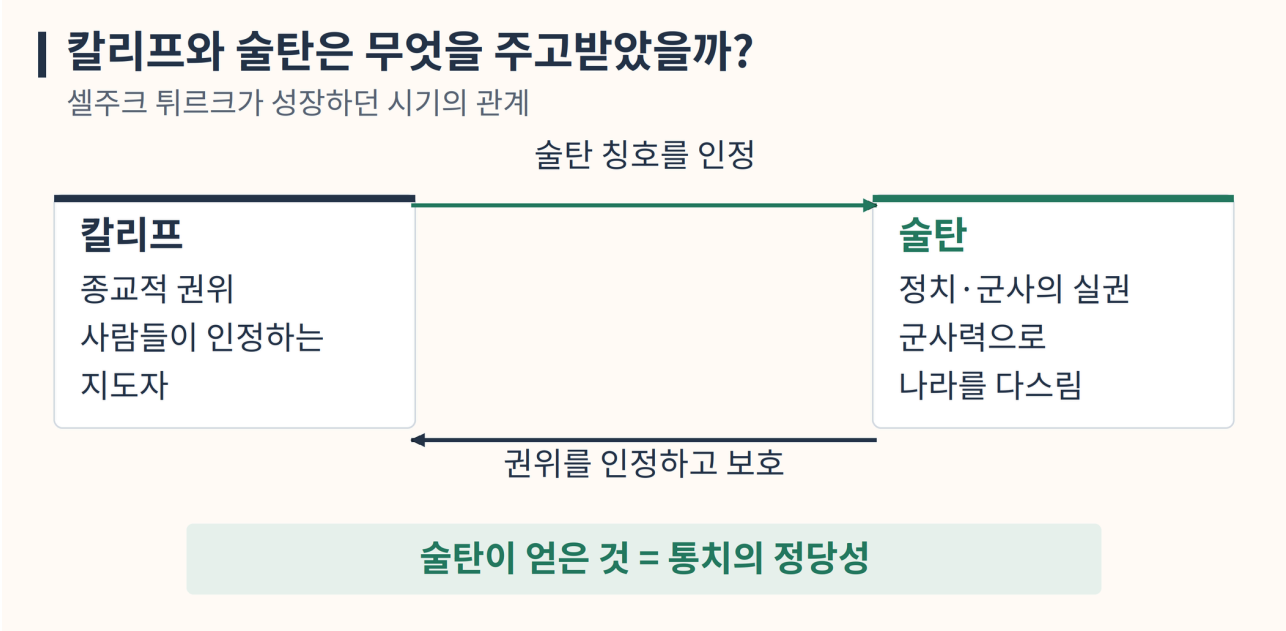
### Q03 칼리프와 술탄은 무엇이 달랐나요?

**답** 셀주크 튀르크가 성장하던 때에는 칼리프가 이슬람 세계의 종교적 권위를 지녔고, 술탄이 실제 정치와 군사를 이끌었어요.

### 낱말 풀이

| 낱말 | 쉬운 뜻 |
|---|---|
| **칼리프** | 무함마드(이슬람교를 창시한 예언자)의 뒤를 이어 이슬람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칭호 |
| **술탄** | 이슬람 세계에서 정치적 권한을 가진 지배자를 가리키는 칭호 |
| **권위** |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는 힘 |
| **실권** | 실제로 일을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권한 |
| **정당성** |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다스려도 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 |

초기 이슬람 역사에서는 **칼리프**가 정치와 종교를 함께 이끌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아바스 왕조가 약해지면서, 실제 정치와 군사를 장악한 다른 지배자들이 나타났어요.




**〈도식 1〉** 칼리프는 술탄의 지위를 인정하고, 술탄은 칼리프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를 보호했어요. 술탄은 군사력에 더해 통치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어요.

**◆ 비유로 이해하기 · 실력과 공식 인정**

경기를 이긴 선수가 협회의 공식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이 챔피언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이처럼 셀주크의 지배자는 군사력으로 **실권**을 잡고, 칼리프의 인정으로 자신의 통치를 뒷받침했어요.

**여기까지만 맞다**: 칼리프는 스포츠 협회장이 아니라 종교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였어요. 술탄은 칼리프를 보호했으며, 실제 정치·군사에서는 더 큰 힘을 행사했어요.

| 셀주크 성장기의 구분 | 칼리프 | 술탄 |
|---|---|---|
| **두드러진 역할** | 이슬람 세계의 종교적 권위를 지님 | 실제 정치와 군사를 이끎 |
| **두 지위의 관계** | 술탄의 지위를 인정함 | 칼리프의 권위를 인정하며 실권을 행사함 |

이 표는 **셀주크 튀르크가 성장하던 시기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에요.

## Q04 셀주크 튀르크의 성장은 십자군 전쟁과 어떻게 이어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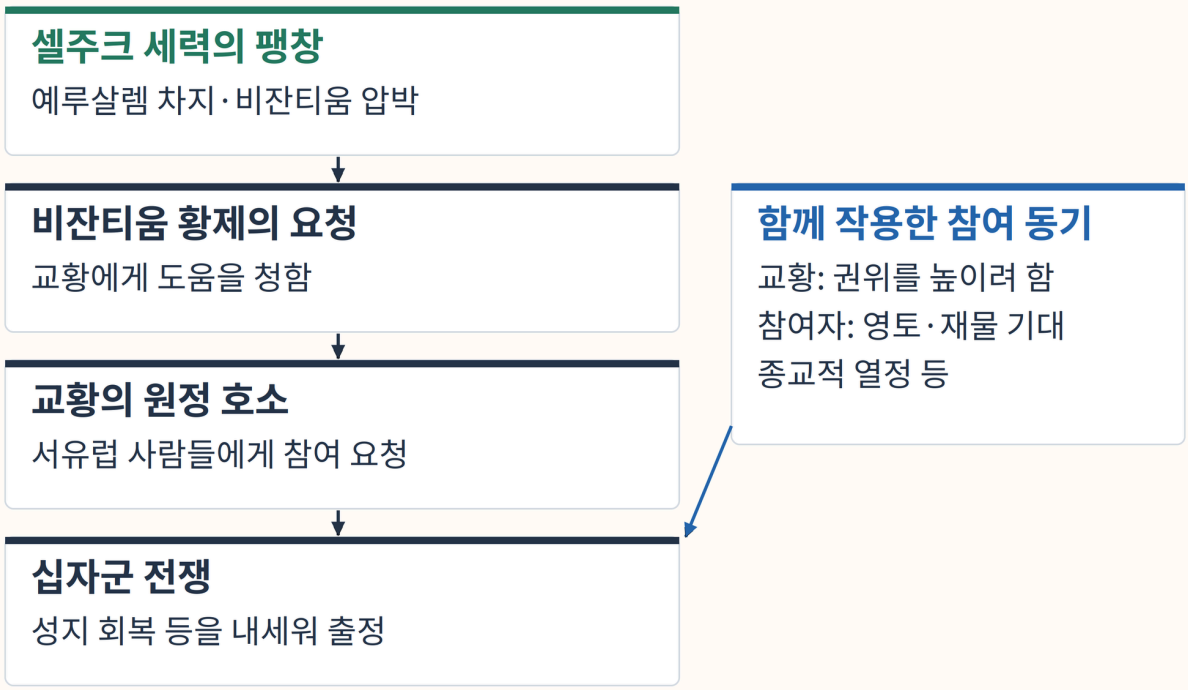
**답** 셀주크 세력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자, 비잔티움 황제가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것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 낱말 풀이

| 낱말 | 쉬운 뜻 |
|---|---|
| **성지** | 종교에서 특별히 신성하게 여기는 곳 |
| **십자군** | 중세에 성지 회복 등을 내세워 서유럽에서 출정한 군대 |
| **원정** | 멀리 떨어진 곳으로 군대를 보내 싸우는 일 |
| **비잔티움 제국** |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삼은 크리스트교 국가 |
| **교황** | 서유럽 크리스트교 세계의 종교 지도자 |

셀주크 튀르크는 중앙아시아에서 지중해 방면까지 세력을 넓혔어요.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했어요. 예루살렘은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등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성지**예요.

## 십자군 전쟁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을까?




외부의 요청과 서유럽 내부의 여러 목적이 함께 작용했어요.

**〈도식 2〉** 비잔티움 황제의 요청을 받은 **교황**은 **원정**을 호소했어요. 이 과정에 **교황**의 권위를 높이려는 뜻과 영토·재물을 얻으려는 기대도 함께 작용했어요.

### Q05 셀주크 튀르크는 왜 약해졌나요?

**답** 십자군과의 오랜 전쟁, 지배자들 사이의 왕위 계승 다툼 등으로 세력이 약해졌어요. 이후 몽골의 침입도 큰 타격을 주었어요.

#### 낱말 풀이

| 낱말 | 쉬운 뜻 |
|---|---|
| **계승** | 앞사람의 지위나 일을 이어받음 |
| **내분** | 한 집단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 |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에서 전쟁이 오래 이어지면 군대와 물자를 마련하는 부담이 커져요. 여기에 술탄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다툼까지 겹치면, 여러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워져요.

셀주크 세력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약해졌어요. **13세기 중반**에는 남아 있던 셀주크 세력도 몽골에 패하면서 독립적인 힘을 잃어 갔어요. 지역에 따라 힘을 잃은 시기와 과정에 차이가 있었어요.

**셀주크 시대의 문화**

셀주크 지배자들은 학문과 예술을 후원했고, 그 바탕 위에서 이슬람 문화가 발전했어요.

**헷갈림 주의**

| ✗ 흔한 오해 | ✓ 바른 이해 |
| --- | --- |
| 옛 튀르크족의 활동 범위는 오늘날 튀르키예와 같다. | 튀르크족은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넓은 지역에서 활동했다. |
| 칼리프는 모든 시대에 종교만 담당했다. | 초기에는 정치·종교를 함께 이끌었고, 셀주크 성장기에는 술탄이 실권을 행사했다. |
| 십자군 전쟁의 원인은 셀주크의 팽창 하나뿐이다. | 비잔티움의 요청과 서유럽 사람들의 여러 목적이 함께 작용했다. |
| 셀주크 전체가 한 번의 전투로 동시에 사라졌다. | 여러 갈래로 나뉘어 약해졌고, 남은 세력도 몽골에 패해 독립적인 힘을 잃었다. |

## ② 티무르 왕조 — 몽골의 계승과 문화의 융합

| 왕조 신분증 | |
|---|---|
| 언제 | 1370년 성립 |
| 누가 세웠나·대표 군주 | 티무르 |
| 어디서 |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이란·이라크까지 확대 |
| 연결해 기억할 도시 | 사마르칸트 |
| 내세운 것 | 몽골 제국의 부흥 |
| 종파 | — |
| 핵심 낱말 3개 | 몽골 계승 · 중계 무역 · 문화 융합 |

### Q06 티무르는 왜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세웠나요?

> **답** 칭기즈 칸이 세운 몽골 제국의 권위와 전통을 이어받는 지배자임을 내세워, 자신의 정복과 통치를 정당화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낱말 풀이**

| 낱말 | 쉬운 뜻 |
|---|---|
| **부흥** | 쇠퇴한 나라나 문화를 다시 일으킴 |
| **자처** |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나 지위에 해당한다고 내세움 |
| **정당화** | 어떤 행동이나 주장이 옳고 받아들일 만하다고 설명함 |
| **직계 후손** | 부모에서 자녀로 직접 이어지는 혈통의 후손 |

몽골 제국이 나뉘고 약해진 뒤에도 **칭기즈 칸(몽골 제국을 세운 사람)**의 이름과 전통은 중앙아시아에서 큰 권위를 지녔어요. 티무르는 **14세기 후반**에 성장하면서 몽골 제국을 다시 일으킨다는 뜻을 내세웠어요.

이를 '칭기즈 칸의 후예를 **자처**했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몽골 제국의 권위와 전통을 잇는 사람이라고 내세웠다**는 뜻에 주목해야 해요. 혈통상의 **직계 후손**인지와는 구별되는 정치적 주장이에요.

앞선 강대한 제국의 계승자라는 주장은 새 지배자가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티무르는 이러한 주장과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세력을 키웠어요.

### 티무르: 몽골 제국의 계승을 내세운 지배자

1436년 『자파르나마』에 그려진 사후 초상



**1370년 티무르 왕조 성립 · 수도 사마르칸트**

**〈인물 1〉** 티무르가 죽은 뒤인 1436년에 제작된 『자파르나마』 속 티무르의 초상 부분이에요. 실제 얼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후대에 그린 그림이에요.

**◆ 비유로 이해하기 · 옛 팀의 정신을 잇는 새 팀**

유명한 팀이 해체된 뒤 새 팀이 '우리가 그 팀의 정신을 잇는다'고 내세우면, 옛 팀을 좋아하던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어요. 티무르도 앞선 몽골 제국의 권위와 전통을 자신의 통치에 연결했어요.

**여기까지만 맞다**: 팀의 정신을 잇는다는 주장은 혈통을 뜻하지 않아요. 티무르는 계승을 내세우는 데 더해 군사력으로 넓은 지역을 정복했어요.

## Q07 티무르 왕조는 언제, 어디에서 성장했나요?

**답** 티무르가 1370년에 세웠으며,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아 서아시아까지 넓은 지역을 지배했어요.

### 낱말 풀이

| 낱말 | 쉬운 뜻 |
|---|---|
| **수도** |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의 중심 도시 |
| **정복** | 군사력으로 다른 지역을 차지함 |

티무르는 중앙아시아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 **정복** 전쟁을 벌였어요. 그 결과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에 걸친 큰 제국이 만들어졌어요. **수도** 사마르칸트는 제국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이 되었어요.

## 티무르 왕조는 어디까지 성장했을까?

1405년경: 티무르 사망 무렵의 주요 지배 영역




티무르 왕조의 주요 지배 영역: 경계는 단순화

사마르칸트가 수도였고, 이란·이라크까지 영역을 넓혔어요.

일시적 원정지는 영역과 구별하여 제외했어요.

**〈지도 3〉** 파랑은 티무르 사망 무렵인 1405년경의 주요 지배 영역이에요. 수도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 이란·이라크에 걸쳐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원정만 한 지역은 영역에서 뺐어요.

티무르 왕조는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세운 **새 왕조**예요. 아래 표는 몽골 제국·티무르 왕조·무굴 제국의 시기와 성장 기반을 구별해 보여 줘요.

| 구분 | 몽골 제국 | 티무르 왕조 | 무굴 제국 |
|---|---|---|---|
| **성립 시기** | 13세기 초 | 1370년 | 1526년 |
| **세운 사람** | 칭기즈 칸 | 티무르 | 바부르 |
| **성장의 기반이 된 지역** | 몽골 초원 | 중앙아시아 | 인도 북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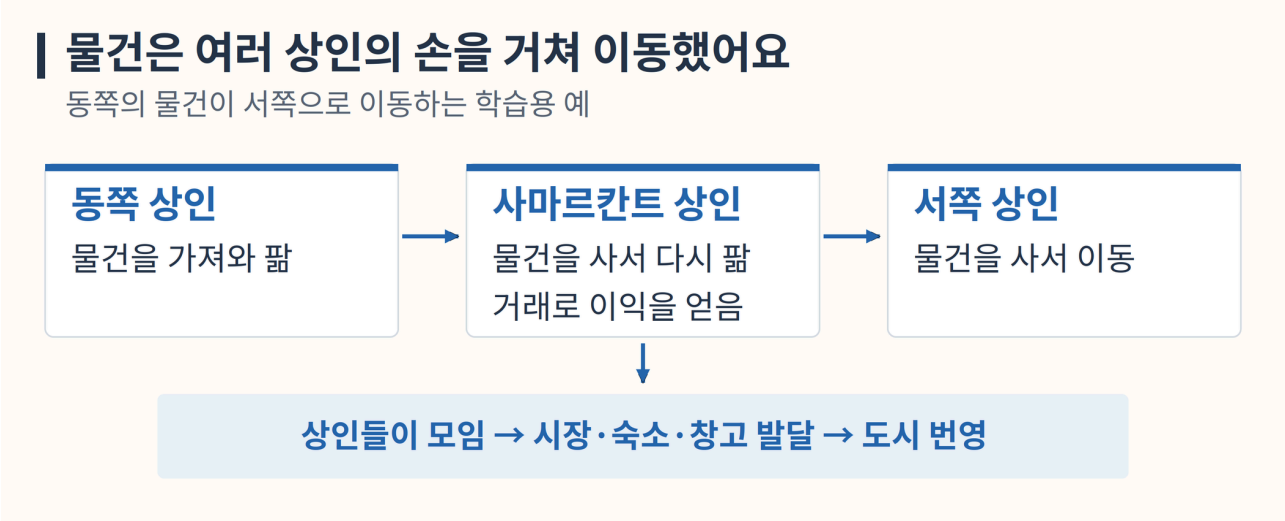
바부르는 W27에서 배운 무굴 제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세 나라는 이름과 계승 관계가 이어져 있어도 서로 다른 시기에 따로 세워진 나라예요.

## Q08 사마르칸트는 왜 중계 무역으로 번영했나요?

**답** 중국 방면과 서아시아·유럽 방면을 잇는 교역로에 자리하여, 여러 지역의 상인과 물건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 낱말 풀이

| 낱말 | 쉬운 뜻 |
|---|---|
| **중계 무역** | 다른 지역에서 온 물건을 다시 다른 지역으로 넘겨 이익을 얻는 무역 |
| **번영** | 경제와 문화 등이 활발해져 잘되는 상태 |




**〈도식 3〉** 동쪽에서 온 물건을 사마르칸트 상인이 사들여 서쪽으로 가는 상인에게 다시 파는 학습용 예예요. 물건이 여러 상인의 손을 거쳐 이동하면서 **중계 무역**이 이루어져요.

**◆ 비유로 이해하기 ·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의 바통이 여러 주자의 손을 거쳐 이동하듯, 물건도 여러 도시 상인의 손을 거쳐 먼 곳까지 이동했어요.

**여기까지만 맞다**: 주자는 바통을 그냥 건네지만, 상인은 물건을 사서 다시 팔아 이익을 얻었어요. 상인들의 거래는 도시의 경제 활동도 활발하게 했어요.

상인들이 모이면 시장과 숙박 시설, 물건을 보관하는 곳도 필요해져요. 교역은 도시의 여러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했어요. 사마르칸트는 교역로의 중요한 도시이자 티무르 왕조의 수도로서 **번영**했어요.

## Q09 티무르 왕조에서는 어떤 문화가 발전했나요?

**답**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페르시아 문화와 튀르크계 사람들의 문화 등이 어우러진 문화가 발전했어요.

### 낱말 풀이

| 낱말 | 쉬운 뜻 |
|---|---|
| **융합** | 서로 다른 요소가 어우러져 새로운 모습을 이룸 |
| **장인** | 물건이나 건축물 등을 만드는 데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 |
| **후원** |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돈이나 물자 등을 지원함 |

티무르 왕조가 다스린 넓은 지역에는 언어와 생활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살았어요. 교역로를 따라 상인과 물건뿐 아니라 지식과 기술도 이동했어요. 지배자들의 **후원**을 받은 학자와 예술가들은 학문과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사마르칸트에는 여러 지역의 **장인**들이 모여 건축과 공예에 참여했어요. 자발적으로 이동한 장인도 있었고, 티무르가 정복한 지역에서 강제로 옮겨 오게 한 장인도 있었어요. 문화가 만나는 데에는 교역뿐 아니라 정복과 사람들의 이동도 영향을 주었어요.

이슬람은 종교와 관련된 말이고, 페르시아와 튀르크는 지역·언어·사람들의 문화 전통과 관련된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페르시아의 문학을 즐길 수도 있었어요.

## 사마르칸트 · 구르에미르

티무르 왕조 때 지은 무덤 건축물 · 티무르가 묻힌 곳



사진: Bgag · CC0

**〈유적 1〉** 오늘날 사마르칸트에 남아 있는 **구르에미르**는 티무르 왕조 때 지은 무덤 건축물로, 티무르가 묻혀 있어요. 세로 골이 난 푸른 돔과 표면의 장식을 볼 수 있어요. 사진: Bgag, CC0.

### Q10 티무르 왕조는 어떻게 쇠퇴했나요?

> **답** 티무르가 죽은 뒤 후계자들 사이의 다툼 등으로 약해졌고, 16세기 초에 **우즈베크족**의 공격을 받아 무너졌어요.

**낱말 풀이**

| 낱말 | 쉬운 뜻 |
|---|---|
| **후계자** | 앞선 지배자의 지위나 일을 이어받는 사람 |
| **우즈베크족** |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며 티무르 왕조를 공격한 튀르크계 유목 세력 |
| **쇠퇴** | 힘이나 기세가 점점 약해짐 |

티무르는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넓은 지역을 지배했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 뒤에는 **후계자**들이 권력을 다투었고, 제국은 여러 세력으로 나뉘어 힘이 약해졌어요. **우즈베크족**의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왕조는 무너졌어요.

왕조가 무너진 뒤에도 문화의 전통은 이어졌어요. 티무르 시대에 발달한 문학·미술·건축의 전통은 뒤의 여러 왕조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앞에서 배운 무굴 제국의 바부르도 티무르의 후손이었어요.

**헷갈림 주의**

| ✗ 흔한 오해 | ✓ 바른 이해 |
| --- | --- |
| 티무르는 칭기즈 칸의 직계 후손이다. | 몽골 제국의 권위·전통을 잇는다고 내세웠다. |
| 이슬람·페르시아·튀르크는 모두 종교 이름이다. | 이슬람은 종교, 페르시아·튀르크는 지역·언어·사람들의 문화 전통과 관련된다. |
| 장인들은 모두 스스로 사마르칸트에 왔다. | 교역과 자발적 이동뿐 아니라 정복에 따른 강제 이동도 있었다. |
| 왕조가 멸망하면 문화도 사라진다. | 통치가 끝나도 문학·미술·건축의 전통은 이어질 수 있다. |

## ③ 사파비 왕조 — 페르시아의 전통과 시아파 이슬람교

| 왕조 신분증 | |
|---|---|
| 언제 | 1501년 성립 |
| 누가 세웠나·대표 군주 | 이스마일 1세: 건국 / 아바스 1세: 개혁 |
| 어디서 | 이란을 중심으로 성장 |
| 연결해 기억할 도시 | 이스파한: 아바스 1세 때 천도 |
| 내세운 것 |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 |
| 종파 | 시아파를 국교로 삼음 |
| 핵심 낱말 3개 | 샤 · 시아파 · 중앙 집권 |

### Q11 사파비 왕조는 누가 세웠고, 무엇을 내세웠나요?

**답** 이스마일 1세가 1501년에 세웠고,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을 내세웠어요.

#### 낱말 풀이

| 낱말 | 쉬운 뜻 |
|---|---|
| **페르시아** | 오늘날 이란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역사적 지역과 문화 전통을 가리키는 말 |
| **샤** | 페르시아에서 군주를 가리키던 칭호 |

사파비 왕조는 오늘날 이란을 중심으로 성장했어요. 지배자는 **페르시아** 군주의 전통적인 칭호인 **샤**를 사용했어요. '**샤**'는 군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칭호**예요.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세웠다면,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을 내세웠어요. 두 왕조 모두 앞선 역사에서 통치의 권위를 찾았지만, 내세운 전통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사파비 왕조는 16세기 초에 새로 성립한 왕조이며,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을 내세워 자신의 통치를 뒷받침했어요. 〈지도 4〉의 자주색 영역과 이란의 위치가 연결돼요.

## 두 왕조의 영역을 겹쳐 보면

서로 다른 시기의 주요 지배 영역 / 실제 경계는 단순화




티무르 왕조: 1405년경 (티무르 사망 무렵)

사파비 왕조: 1629년경 (아바스 1세 말기)

자주색 빗금과 외곽선으로 사파비 영역을 구별할 수 있어요.
겹친 부분은 두 왕조가 서로 다른 시기에 지배한 곳이에요.

**〈지도 4〉** 파랑은 티무르 사망 무렵인 1405년경, 자주는 아바스 1세 말기인 1629년경의 주요 지배 영역이에요. 두 색이 겹치는 곳은 서로 다른 시기에 두 왕조의 지배를 받은 지역이에요.

### 칭호 한눈에 비교하기

| 칭호 | 누구를 가리키나 | 이 단원에서의 연결 | 어떤 힘을 나타내나 |
|---|---|---|---|
| **칼리프** |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 | 아바스 왕조 | 셀주크 성장기에는 종교적 권위 |
| **술탄** |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지배자 | 셀주크 튀르크 | 정치·군사의 실권 |
| **샤** | 페르시아 군주 | 사파비 왕조 | 페르시아 군주의 지위 |
| **교황** | 서유럽 크리스트교의 지도자 | 십자군 원정을 호소함 | 크리스트교의 종교적 권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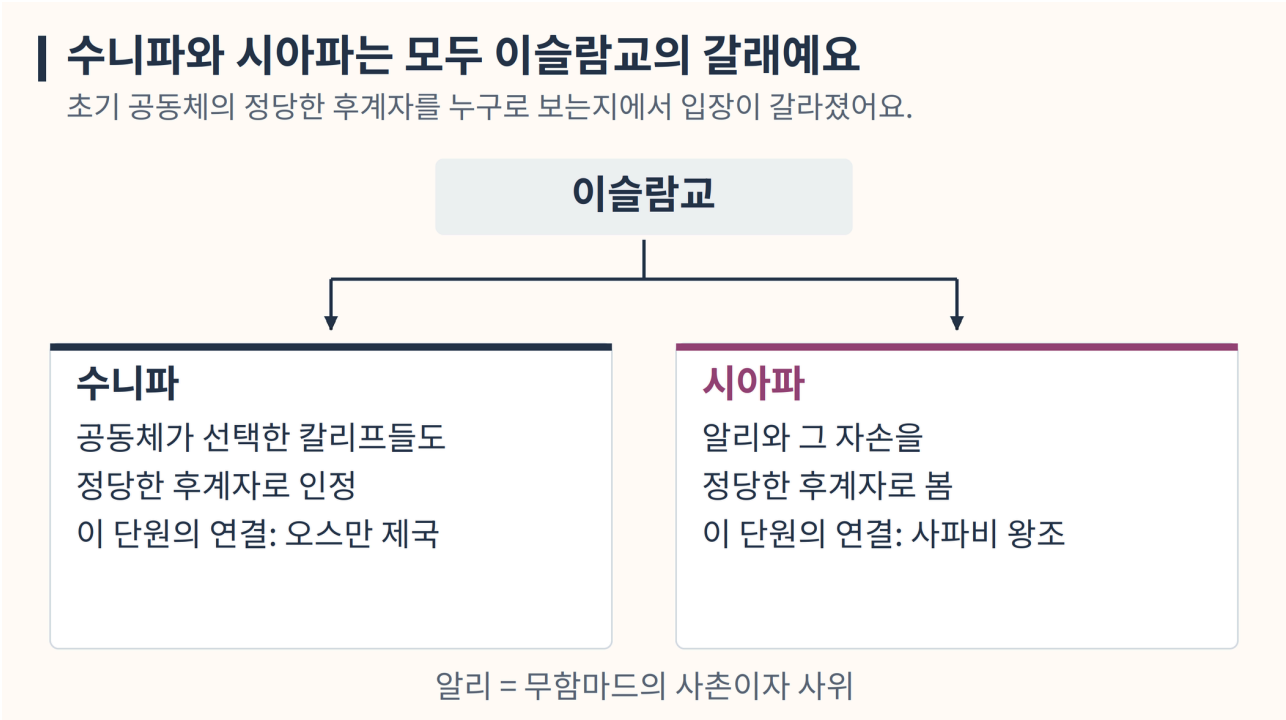
## Q12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 **답** 이슬람교의 한 종파인 시아파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뒷받침하는 종교로 정했다는 뜻이에요.

### 낱말 풀이

| 낱말 | 쉬운 뜻 |
|---|---|
| **종파** | 같은 종교 안에서 지도자나 가르침을 이해하는 방식 등에 따라 나뉜 갈래 |
| **국교** |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특별히 뒷받침하는 종교 |
| **결속** | 사람들이 한 집단으로 뭉침 |
| **알리** |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 시아파가 정당한 후계자로 보는 인물 |
| **오스만 제국** | 소아시아(오늘날 튀르키예의 아시아 쪽 지역)에서 성장한 튀르크족의 이슬람 국가 |

이슬람교 안에는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큰 갈래가 있어요.




**〈도식 4〉** 수니파와 시아파는 모두 이슬람교에 속해요. 수니파는 공동체가 선택한 칼리프들도 정당한 후계자로 인정했어요.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와 그 자손을 정당한 후계자로 보았어요.

사파비 왕조는 시아파를 **국교**로 삼아 나라의 통치와 **결속**을 뒷받침하려 했어요. 수니파를 바탕으로 한 이웃의 **오스만 제국**과는 종파의 차이도 있었어요. 다만 두 나라의 대립에는 종교 차이뿐 아니라 영토와 세력을 둘러싼 경쟁도 작용했어요.

국교는 **국가가 어떤 종교를 공식적으로 내세우는가**를 나타내요. 개인들의 믿음이 변하는 과정과는 구별돼요. 오스만 제국의 발전은 다음 편에서 이어져요.

## Q13 아바스 1세는 사파비 왕조를 어떻게 강화했나요?

> **답** 관료 조직을 정비하고 상비군을 길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어요. 대외적으로는 오스만 제국과 싸워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기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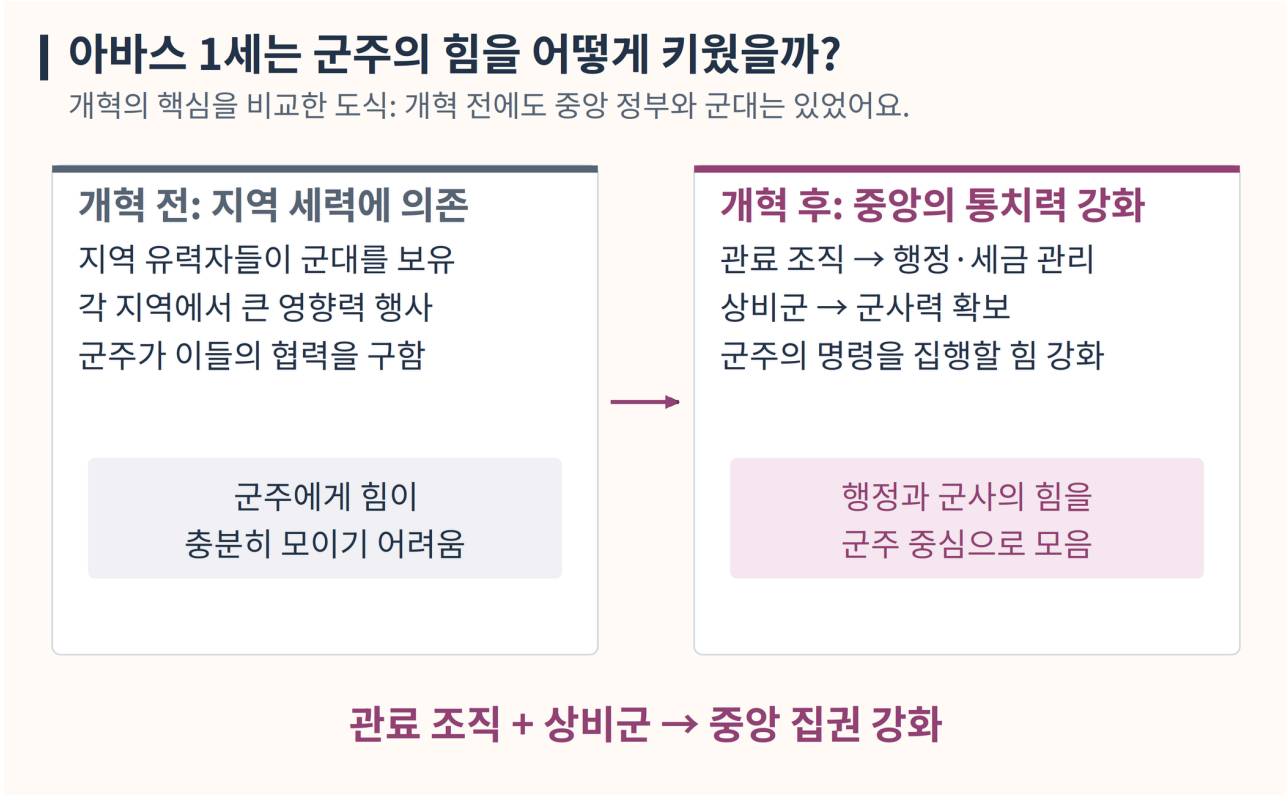
### 낱말 풀이

| 낱말 | 쉬운 뜻 |
|---|---|
| **관료** | 국가의 행정 업무를 맡는 관리 |
| **상비군** | 전쟁이 없을 때에도 일정한 조직과 훈련을 유지하는 군대 |
| **중앙 집권** | 중앙의 지배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모아 행사하는 것 |
| **유력자** | 한 지역이나 집단에서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 |

### 이름이 비슷해도 다른 대상이에요

| 아바스 왕조 | 아바스 1세 |
|---|---|
| 칼리프가 다스린 왕조 | 사파비 왕조의 군주인 샤 |
| 수도: 바그다드 | 이스파한으로 수도를 옮김 |
| Q02·Q03에서 셀주크와의 관계로 등장 | Q13·Q14에서 개혁과 천도로 등장 |

지역의 **유력자**들이 각자 군대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군주가 이들에게 의존하기 쉬워요. **아바스 1세**는 **관료** 조직과 **상비군**을 정비하여 군주의 통치력을 높이려 했어요.




**〈도식 5〉** 왼쪽은 지역 세력에 대한 의존을, 오른쪽은 관료 조직과 상비군을 통해 군주의 통치력이 강화된 모습을 나타낸 학습용 비교예요. 개혁 전에도 중앙 정부와 군대는 있었어요.

관료 조직이 갖추어지면 세금과 행정 업무를 중앙에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상비군을 두면 전쟁이 날 때마다 지역 세력에게 군대를 빌리는 부담을 줄이고, 군주가 군대를 직접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어요.

## 사파비 왕조를 세운 사람과 강화한 사람




**이스마일 1세**

세운 사람: 1501년 건국

사후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초상
1552~1568년 제작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



**아바스 1세**

강화한 사람: 개혁·천도

1617년경의 초상

**〈인물 2〉** 왼쪽은 이스마일 1세가 죽은 뒤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초상(1552~1568년)으로,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 오른쪽은 1617년경 제작된 아바스 1세의 초상이에요. 건국과 개혁의 주인공이 구별돼요.

**◆ 비유로 이해하기 · 늘 준비된 소방대**

불이 날 때마다 이웃에게 사람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보다, 늘 훈련하고 대기하는 소방대를 둔 경우가 필요할 때 인력을 움직이기 쉬워요. 상비군도 평소 조직과 훈련을 유지하여 군주가 필요할 때 움직일 수 있는 군대였어요.

**여기까지만 맞다**: 소방대는 불을 끄지만, 상비군은 외부와 전쟁을 하고 지방 세력에게 군주의 명령을 따르게 하는 힘이기도 했어요. 중앙 집권에는 군대뿐 아니라 관료 조직의 정비도 필요했어요.

### Q14 이스파한은 어떻게 큰 교역 도시가 되었나요?

**답** 아바스 1세가 **16세기 말** 수도를 이스파한으로 옮겨 도시를 정비했고, 이스파한은 동서 교역을 잇는 중심지로 발전했어요.

**낱말 풀이**

| 낱말 | 쉬운 뜻 |
|---|---|
| **천도** |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김 |
| **상업** | 물건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는 경제 활동 |
| **모스크** | 이슬람교도가 예배를 드리는 이슬람 사원 |

아바스 1세는 이스파한에 왕실과 행정의 중심을 두고 도시를 발전시켰어요. 광장과 시장, **모스크(이슬람 사원)** 등이 들어섰고, 상인과 장인들이 활동하는 큰 도시가 되었어요. 아바스 1세의 **천도**로 이스파한에 정치와 경제의 기능이 더욱 모였어요.

이스파한은 동서 교역을 연결하는 위치를 바탕으로 **상업**과 중계 무역이 발달했어요. 여러 지역에서 온 상인들이 거래하면서 물건과 문화가 함께 오갔어요. 정치의 중심인 수도의 역할과 경제의 중심인 교역 도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 것이에요.

| 구분 | 사마르칸트 | 이스파한 |
|---|---|---|
| **이 단원에서 연결할 왕조** | 티무르 왕조 | 사파비 왕조 |
| **위치** | 중앙아시아의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 서아시아의 오늘날 이란 |
| **공통점** | 수도이자 교역·문화의 중심지 | 수도이자 교역·문화의 중심지 |

## 수도에 남은 두 왕조의 건축



**사마르칸트 · 티무르 왕조**

사진: Bgag · CC0



**이스파한 · 사파비 왕조**

사진: P. Ringgenberg · CC BY-SA 3.0

**〈유적 비교〉** 왼쪽은 사마르칸트의 구르에미르, 오른쪽은 이스파한의 이맘 모스크예요. 이맘 모스크는 아바스 1세 때 조성한 이맘 광장(옛 왕의 광장) 남쪽에 있으며, 아바스 1세 때 착공했어요. 오른쪽 사진의 앞쪽 공간은 광장의 일부예요. 두 도시에서 이슬람 문화가 건축으로 드러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진: 왼쪽 Bgag · CC0 / 오른쪽 Patrick Ringgenberg · CC BY-SA 3.0. 사진의 색과 형태는 바꾸지 않았어요.

두 도시는 발달한 시기와 왕조가 다르지만, 교역로와 수도의 기능을 바탕으로 번영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 Q15 사파비 왕조는 왜 쇠퇴했나요?

> **답** 왕실의 권력 다툼 등으로 통치력이 약해지고 주변 세력의 침입이 이어지면서, 18세기에 왕조의 지배가 끝났어요.

### 낱말 풀이

| 낱말 | 쉬운 뜻 |
|---|---|
| **왕실** | 군주와 그 가족으로 이루어진 집안 |
| **통치력** | 나라를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힘 |

아바스 1세 때 강해졌던 나라의 힘이 계속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것은 아니에요. 뒤에는 **왕실**의 갈등과 통치의 혼란이 커졌어요. 군주가 관리와 군대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 세금을 거두거나 외부의 공격을 막는 일도 어려워져요.

사파비 왕조는 내부의 혼란에 주변 세력의 침입이 겹치면서 무너졌어요. 한 가지 사건만 외우기보다 **안에서는 권력 다툼, 밖에서는 침입**이 겹쳐 나라의 힘이 약해졌다고 정리하면 좋아요.

셀주크 튀르크와 티무르 왕조에서도 내부의 다툼과 외부의 전쟁이 쇠퇴에 영향을 주었어요. 각 왕조의 내부 갈등과 외부 공격을 나란히 놓으면 공통점과 차이가 드러나요.

**안에서 다투고 + 밖에서 공격받으면 → 나라의 힘이 약해져요.**

| 왕조 | 안에서: 내부 갈등 | 밖에서: 전쟁·침입 | 힘을 잃거나 끝난 시기 |
|---|---|---|---|
| **셀주크 튀르크** | 왕위 계승 다툼·분열 | 십자군과의 오랜 전쟁, 몽골 침입 | 13세기 중반 남은 세력도 독립적 힘을 잃음 |
| **티무르 왕조** | 후계자 다툼 | 우즈베크족의 공격 | 16세기 초 |
| **사파비 왕조** | 왕실 권력 다툼 | 주변 세력의 침입 | 18세기 |

**왕조의 멸망 ≠ 문화의 소멸**: 통치가 끝나도 문화는 뒤의 왕조에 이어질 수 있어요.

## Q16 세 왕조는 이름만 바뀐 같은 나라였나요?

> **답** 아니에요. 이슬람교와 교역로를 통해 연결되었지만, 등장한 시기와 성장 지역, 내세운 전통이 다른 왕조들이에요.

세 왕조는 각각 다른 집안과 세력이 세웠어요. 사파비 왕조가 세워진 1501년에는 티무르 왕조의 일부 세력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 비교 기준 | 셀주크 튀르크 | 티무르 왕조 | 사파비 왕조 |
|---|---|---|---|
| **성장·성립 시기** | 11세기 중반에 크게 성장 | 1370년 성립 | 1501년 성립 |
| **성장 지역** | 중앙아시아에서 진출하여 바그다드·지중해 방면까지 | 사마르칸트 중심, 이란·이라크까지 | 이란 중심 |
| **통치와 관련한 핵심** | 칼리프에게 술탄의 지위를 인정받음 |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세움 |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 샤의 칭호, 시아파 국교 |
| **연결해 기억할 도시** | 바그다드: 점령한 뒤 칼리프에게서 술탄 칭호를 받음 | 사마르칸트: 수도·중계 무역 | 이스파한: 아바스 1세 때 옮긴 수도·중계 무역 |
| **종파** | — | — | 시아파 국교 |
| **함께 기억할 특징** | 학문과 예술을 후원함 | 이슬람·페르시아·튀르크 문화의 융합 | 아바스 1세의 관료 조직·상비군 정비 |

**헷갈림 주의**

| ✗ 흔한 오해 | ✓ 바른 이해 |
|---|---|
| 국교를 정하면 모든 백성이 즉시 개종한다. | 국가의 공식 종교와 각 개인의 믿음은 구별된다. |
| 아바스 왕조와 아바스 1세는 같은 대상이다. | 앞은 칼리프의 왕조, 뒤는 사파비 왕조의 군주이다. |
| 사파비 왕조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그대로 계속된 나라다. | 1501년에 새로 성립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을 내세웠다. |
| 세 왕조는 이름만 바꾼 한 나라다. | 서로 다른 왕조이며, 티무르 말기와 사파비 초기에는 시기가 겹친다. |

이슬람 세계에서는 여러 왕조가 경쟁하면서도 물건과 문화가 오갔어요. 같은 종교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왕조마다 통치와 문화의 모습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 빈칸으로 정리하는 세 왕조

〈정리 지도〉의 도시와 연결되는 왕조·인물·낱말을 빈칸에 쓰세요. 정답은 확인 문제 해설 뒤에 있어요.

### 빈칸으로 정리하는 세 왕조

회색 점선: 오늘날 국경 / 권역은 학습용으로 대략 구분




**바그다드**

바그다드를 점령한 왕조: (  )
받은 칭호: (  )
그 칭호를 인정한 지도자: (  )

**사마르칸트**

왕조: (  )
세운 사람: (  )
물건을 사서 다시 파는 무역: (  )

**이스파한**

왕조: (  )
세운 사람: (  )
수도를 옮긴 군주: (  )
국교의 종파: (  )

**〈정리 지도〉** 바그다드의 표시는 셀주크 세력이 점령하여 칼리프와 관계를 맺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 확인 문제

## 객관식 01~20

각 문항의 정답은 하나예요. 자료문은 학습을 위해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당시 기록을 그대로 옮긴 인용문이 아니에요.

**01**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마르칸트는 서아시아의 오늘날 이란에 있다.
②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는 여러 나라와 지역을 묶어 부르는 지역 이름이다.
③ 바그다드와 이스파한은 모두 중앙아시아에 있다.
④ 이스파한은 중앙아시아의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 있다.

**02** **셀주크 튀르크의 기원과 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몽골 초원의 몽골족이 세워 중앙아시아로 진출했다.
② 16세기에 이란에서 성장한 페르시아 왕조이다.
③ 몽골 초원에서 성장하여 1370년에 몽골 제국을 세웠다.
④ 중앙아시아의 튀르크계 유목민이 세워 서아시아로 세력을 넓혔다.

**03** **다음 자료의 빈칸에 들어갈 칭호는?**

> 셀주크의 지배자는 바그다드를 점령한 뒤 칼리프에게서 (　　)의 지위를 인정받고, 실제 정치와 군사를 이끌었다.

① 술탄　② 샤　③ 칼리프　④ 교황

**04** **셀주크 튀르크가 성장하던 시기의 칼리프와 술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칼리프가 모든 군대를 직접 지휘했고 술탄은 종교 의식만 맡았다.
② 두 칭호는 모두 페르시아의 군주만 사용할 수 있었다.
③ 칼리프의 종교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술탄이 정치와 군사의 실권을 행사했다.
④ 술탄이 페르시아 군주의 샤라는 칭호를 칼리프에게 내려 주었다.

**05** **셀주크 세력의 성장과 십자군 전쟁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셀주크 세력의 압박을 받은 비잔티움 황제가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② 셀주크 술탄이 교황에게 도움을 청하여 십자군을 조직했다.

③ 사파비 왕조의 시아파 국교 채택으로 십자군 전쟁이 처음 시작되었다.

④ 티무르의 사마르칸트 정복이 비잔티움 황제의 도움 요청으로 이어졌다.

**06** **셀주크 튀르크의 쇠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샤의 칭호를 사용한 뒤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으로 약해졌다.

② 오랜 전쟁과 왕위 계승 다툼으로 약해졌고, 몽골의 침입도 타격을 주었다.

③ 아바스 1세가 관료 조직과 상비군을 정비하면서 약해졌다.

④ 사마르칸트를 잃은 뒤 16세기 초 우즈베크족의 공격으로 무너졌다.

**0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왕조는?**

> 1370년에 성립하였다.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세웠으며,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았다.

① 사파비 왕조 ② 셀주크 튀르크 ③ 무굴 제국 ④ 티무르 왕조

**08** **'티무르가 칭기즈 칸의 후예를 자처했다'는 설명을 가장 알맞게 이해한 것은?**

① 티무르가 칭기즈 칸의 직계 후손이라는 혈통상의 사실만을 뜻한다.

② 티무르가 칭기즈 칸과 같은 시대에 몽골 제국을 공동으로 세웠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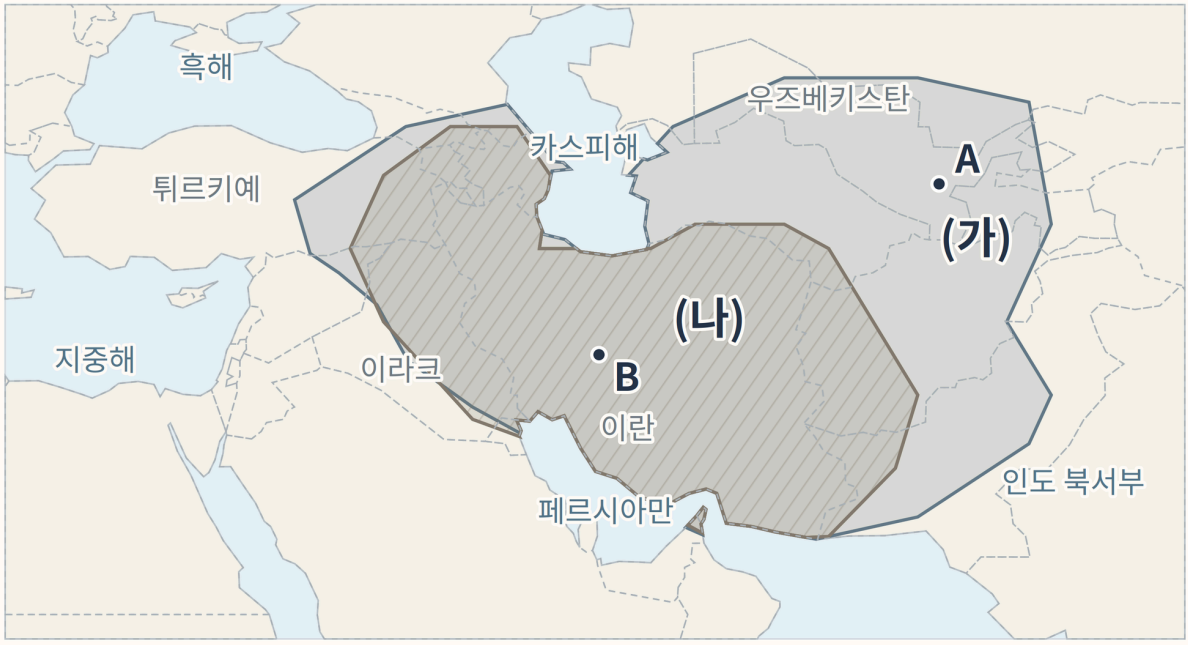
③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권위와 전통을 잇는 지배자라고 내세웠다는 뜻이다.

④ 티무르가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을 내세워 시아파를 국교로 삼았다는 뜻이다.

**09** 다음 지도에서 (가) 영역의 왕조와 A 도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확인 09 자료

서로 다른 시기의 주요 지배 영역 / 실제 경계는 단순화




(가) 14세기 말~15세기 초
(나) 17세기 초

A는 (가) 왕조의 수도였던 도시예요.

자료: 서로 다른 시기의 두 왕조 영역을 겹쳐 표시했어요.

① 사파비 왕조 — 이스파한
② 티무르 왕조 — 사마르칸트
③ 티무르 왕조 — 이스파한
④ 셀주크 튀르크 — 사마르칸트

**10**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제 활동은?

사마르칸트의 상인이 동쪽에서 온 물건을 사들인 뒤, 서쪽으로 가는 상인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었다.

① 중계 무역
② 유목 생활
③ 왕위 계승
④ 상비군 운영

**11** **티무르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아파를 국교로 삼은 것이 사마르칸트 문화 발전의 출발점이었다.

② 페르시아 군주의 샤 칭호를 내세워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을 추진했다.

③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페르시아·튀르크의 문화 전통 등이 어우러졌다.

④ 이스파한을 수도로 옮긴 뒤 그곳을 학문과 건축의 중심지로 삼았다.

**12** **티무르 왕조의 쇠퇴와 그 뒤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파비 왕조가 건국되기 훨씬 전인 11세기에 멸망했다.

② 티무르가 죽은 뒤 아바스 1세가 그의 뒤를 이어 군사 개혁을 실시했다.

③ 왕조가 무너진 뒤 바부르가 이란에서 사파비 왕조를 세웠다.

④ 후계자들의 다툼과 외부의 공격으로 쇠퇴했지만 문화는 뒤의 왕조에도 영향을 주었다.

**13** **사파비 왕조의 성립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이스마일 1세가 1501년에 세웠다.

② 아바스 1세가 1370년에 세웠다.

③ 티무르가 1501년에 세웠다.

④ 바부르가 1526년에 세웠다.

**14** **사파비 왕조의 지배자가 '샤'라는 칭호를 사용한 사실과 가장 관련 깊은 것은?**

① 몽골 제국의 권위와 전통을 계승한다고 내세웠다.

② 바그다드의 칼리프에게 술탄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③ 페르시아 군주의 전통을 강조했다.

④ 서유럽의 종교 지도자로서 십자군 원정을 호소했다.

**15** **사파비 왕조의 국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아파는 공동체가 선택한 초기 칼리프들을 모두 정당한 후계자로 인정하는 입장이었다.

② 수니파를 국교로 삼아 오스만 제국과 같은 종파를 통치의 바탕으로 삼았다.

③ 국교는 각 지역의 상인이 거래할 때 따르는 공통 규칙을 뜻했다.

④ 이슬람교의 한 종파인 시아파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뒷받침했다.

**16** **다음 정책을 펼친 군주는?**

- 관료 조직 정비
- 상비군 육성

① 이스마일 1세 ② 아바스 1세 ③ 티무르 ④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17** 다음 두 인물의 업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확인 17 자료




(가) 이스마일 1세



(나) 아바스 1세

자료: (가) 이스마일 1세 / (나) 아바스 1세. 두 초상은 본문의 〈인물 2〉와 같은 작품이에요.

① (가): 이스파한으로 천도 / (나): 1501년 사파비 건국

② (가): 1370년 티무르 왕조 건국 / (나): 시아파 국교 채택

③ (가): 칼리프에게 술탄 칭호를 받음 / (나):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정함

④ (가): 1501년 사파비 건국 / (나): 관료 조직·상비군 정비

**18** 다음 두 유적을 도시·왕조와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확인 18 자료



(가)

사진: Bgag · CC0



(나)

사진: P. Ringgenberg · CC BY-SA 3.0

자료: (가)는 푸른 돔이 있는 무덤 건축, (나)는 광장 남쪽의 모스크예요. 본문의 〈유적 비교〉와 같은 사진이에요.

① (가): 이스파한·사파비 / (나): 사마르칸트·티무르

② (가): 사마르칸트·티무르 / (나): 이스파한·사파비

③ (가): 바그다드·아바스 / (나): 이스파한·티무르

④ (가): 사마르칸트·셀주크 / (나): 바그다드·아바스

**19**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이스마일 1세가 사파비 왕조를 세웠다.
ㄴ. 티무르가 자신의 왕조를 세웠다.
ㄷ. 셀주크 튀르크가 11세기 중반에 크게 성장했다.

① ㄱ → ㄴ → ㄷ ② ㄴ → ㄷ → ㄱ ③ ㄷ → ㄴ → ㄱ ④ ㄷ → ㄱ → ㄴ

**20** 세 왕조의 역사를 공부한 뒤 내린 판단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이슬람교와 교역로로 연결되었지만 성장 시기와 지역, 통치의 전통에는 차이가 있었다.

② 셀주크 가문이 사마르칸트로 수도를 옮기면서 티무르 왕조로 이름을 바꾸었다.

③ 1501년 사파비 건국은 티무르가 1370년에 나라를 세우기보다 앞선 일이었다.

④ 사파비는 몽골 제국의 부흥을, 티무르는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을 내세웠다.

## 단답·서술형 21~24

**21** **빈칸에 알맞은 칭호를 쓰세요.**

셀주크 튀르크가 성장하던 시기, 이슬람 세계의 종교적 권위를 지닌 지도자는 (ㄱ), 실제 정치와 군사의 실권을 행사한 지배자는 (ㄴ)이라고 불렸다.

(ㄱ) _____ (ㄴ) _____

**22** **빈칸에 알맞은 도시 이름을 쓰세요.**

티무르 왕조의 수도이자 중계 무역의 중심지는 (ㄱ)이다. 아바스 1세가 사파비 왕조의 수도로 삼아 발전시킨 도시는 (ㄴ)이다.

(ㄱ) _____ (ㄴ) _____

**23** **군사력을 가진 셀주크의 지배자가 칼리프에게 술탄의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 까닭을 쓰세요.**

'칼리프의 권위'와 '통치'라는 말을 모두 사용하여 한두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_____

_____

_____

_____

**24** **아바스 1세가 관료 조직을 정비하고 상비군을 기른 일이 중앙 집권 강화로 이어지는 까닭을 쓰세요.**

행정과 군사 두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두 문장 안팎으로 설명하세요.

_____

_____

_____

_____

# 빠른 정답

| 문항 | 정답 | 문항 | 정답 | 문항 | 정답 | 문항 | 정답 |
|---|---|---|---|---|---|---|---|
| 01 | ② | 06 | ② | 11 | ③ | 16 | ② |
| 02 | ④ | 07 | ④ | 12 | ④ | 17 | ④ |
| 03 | ① | 08 | ③ | 13 | ① | 18 | ② |
| 04 | ③ | 09 | ② | 14 | ③ | 19 | ③ |
| 05 | ① | 10 | ① | 15 | ④ | 20 | ① |

| 문항 | 정답·핵심 요소 |
|---|---|
| **21** | ㄱ 칼리프 / ㄴ 술탄 |
| **22** | ㄱ 사마르칸트 / ㄴ 이스파한 |
| **23** | 칼리프의 권위를 통해 자신의 통치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려 함 |
| **24** | 관료 조직을 통한 중앙의 행정 관리 + 상비군을 통한 군주의 군사력 확보 |

# 정답과 해설

### 확인 01 — 정답 ②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는 지역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특정한 한 나라나 한 왕조의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선택지:** ① 사마르칸트는 중앙아시아의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 있어요. ③ 바그다드와 이스파한은 서아시아에 있어요. ④ 이스파한은 서아시아의 오늘날 이란에 있어요.

**다시 읽기: Q01**

**확인 02 — 정답 ④**

셀주크 튀르크는 중앙아시아의 **튀르크족(튀르크계 유목민)**이 세웠으며,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 서아시아로 진출했어요.

**다른 선택지**: ① 중앙아시아의 튀르크계 유목민이 세웠어요. 몽골 초원의 몽골족과 구별해야 해요. ② 16세기 이란에서 성장한 왕조는 사파비 왕조와 연결돼요. ③ 몽골 제국은 칭기즈 칸이 13세기 초에 세웠어요. 1370년은 티무르 왕조의 성립 연도예요.

**다시 읽기: Q02, Q07, Q11**

**확인 03 — 정답 ①**

술탄은 이슬람 세계에서 정치적 권한을 가진 지배자를 가리키는 칭호예요. 셀주크의 지배자는 칼리프에게 이 지위를 인정받았어요.

**다른 선택지**: ② 샤는 페르시아 군주의 칭호예요. ③ 칼리프는 이 문장에서 술탄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쪽이에요. ④ 교황은 서유럽 크리스트교 세계의 지도자이며, 자료의 지배자를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읽기: Q02, Q03, Q11**

**확인 04 — 정답 ③**

셀주크 성장기에는 칼리프의 종교적 권위와 술탄의 실제 정치·군사적 권한이 구별되었어요. 이는 그 시기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에요.

**다른 선택지**: ① 두 지위의 역할을 뒤바꾸었어요. ② 두 칭호가 페르시아 군주에게만 사용된 것은 아니에요. ④ 술탄은 칼리프에게 샤의 칭호를 내린 사람이 아니라, 칼리프에게서 술탄의 지위를 인정받은 지배자예요.

**다시 읽기: Q03**

**확인 05 — 정답 ①**

셀주크 세력의 팽창으로 압박을 받은 비잔티움 황제는 교황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이는 십자군 전쟁의 배경 가운데 하나예요.

**다른 선택지**: ② 도움을 청한 쪽은 셀주크 술탄이 아니라 비잔티움 황제예요. ③ 사파비 왕조는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때보다 훨씬 뒤인 1501년에 세워졌어요. ④ 도움 요청의 배경은 티무르의 사마르칸트 정복이 아니라 셀주크 세력의 팽창이에요.

**다시 읽기: Q04, Q11**

**확인 06 — 정답 ②**

셀주크의 쇠퇴에는 오랜 전쟁과 왕위 계승 다툼이 작용했고, 뒤에는 몽골의 침입도 타격을 주었어요.

**다른 선택지**: ① 샤와 시아파 국교는 사파비 왕조와 연결돼요. ③ 아바스 1세는 사파비의 군주이며 두 정책으로 나라를 강화했어요. ④ 사마르칸트와 16세기 초 우즈베크족의 공격은 티무르 왕조와 연결돼요.

**다시 읽기: Q05, Q10, Q11, Q13**

**확인 07 — 정답 ④**

1370년, 몽골 제국의 부흥, 사마르칸트는 티무르 왕조와 연결하는 핵심 단서예요.

**다른 선택지**: ① 사파비 왕조는 1501년에 성립했어요. ② 셀주크 튀르크는 11세기 중반에 크게 성장했어요. ③ 무굴 제국은 1526년에 인도에서 성립했어요.

**다시 읽기: Q06, Q07, Q16**

**확인 08 — 정답 ③**

'후예를 자처했다'는 표현에서는 몽골 제국의 권위와 전통을 잇는 지배자라고 내세웠다는 뜻을 이해해야 해요. 혈통상의 직계 후손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몽골 제국의 계승자라는 정치적 주장을 뜻해요.

**다른 선택지**: ① 이 표현을 실제 직계 혈통의 증명으로 해석했어요. ② 칭기즈 칸과 티무르가 성장한 시대는 달라요. ④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과 시아파 국교 채택은 사파비 왕조의 특징이에요.

**다시 읽기: Q06, Q07, Q11**

**확인 09 — 정답 ②**

(가)는 14세기 말~15세기 초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에 걸쳐 성장한 티무르 왕조의 영역이에요. A는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트이고, B는 이란 중부의 이스파한이에요.

**다른 선택지**: ① 사파비 왕조는 1501년에 성립했으며, 이스파한은 A가 아니라 이란 중부의 B 위치에 있어요. ③ 티무르 왕조는 맞지만, A는 이스파한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트예요. ④ A는 사마르칸트가 맞지만, (가)의 시기와 영역은 셀주크가 아니라 티무르 왕조에 해당해요.

**다시 읽기: Q01, Q07, Q14**

**확인 10 — 정답 ①**

다른 지역에서 온 물건을 다시 다른 지역으로 넘겨 이익을 얻는 무역을 중계 무역이라고 해요.

**다른 선택지**: ② 유목은 가축의 풀과 물을 찾아 이동하며 생활하는 것이에요. ③ 왕위 계승은 지배자의 자리를 이어받는 일이에요. ④ 상비군 운영은 평소에도 조직과 훈련을 유지하는 군대를 관리하는 일이에요.

**다시 읽기: Q08**

**확인 11 — 정답 ③**

티무르 왕조에서는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페르시아와 튀르크의 문화 전통 등이 어우러졌어요.

**다른 선택지**: ① 시아파 국교 채택은 사파비 왕조와 연결돼요. ②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과 샤의 칭호도 사파비의 특징이에요. ④ 이스파한 천도는 사파비의 아바스 1세가 추진했어요.

**다시 읽기: Q09, Q11, Q12, Q14**

**확인 12 — 정답 ④**

티무르 왕조는 후계자들의 다툼과 외부의 공격으로 쇠퇴했어요. 그러나 문화의 전통은 이후에도 이어졌어요.

**다른 선택지**: ① 티무르 왕조의 멸망은 16세기 초예요. ② 아바스 1세는 티무르의 후계자가 아니라 사파비 왕조의 군주예요. ③ 바부르는 인도에서 무굴 제국을 세웠고, 사파비의 창건자는 이스마일 1세예요.

**다시 읽기: Q07, Q10, Q11, Q13**

**확인 13 — 정답 ①**

사파비 왕조는 이스마일 1세가 1501년에 세웠어요.

**다른 선택지**: ② 아바스 1세는 사파비 왕조의 발전을 이끈 군주이지만 창건자는 아니에요. ③ 티무르가 세운 것은 1370년의 티무르 왕조예요. ④ 바부르가 1526년에 세운 것은 무굴 제국이에요.

**다시 읽기: Q07, Q11, Q13**

**확인 14 — 정답 ③**

샤는 페르시아 군주의 전통적인 칭호예요. 사파비가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을 내세운 것과 연결돼요.

**다른 선택지**: ① 몽골 제국의 계승은 티무르와 연결돼요. ② 칼리프에게 술탄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셀주크 지배자예요. ④ 십자군 원정을 호소한 종교 지도자는 교황이에요.

**다시 읽기: Q03, Q04, Q06, Q11**

**확인 15 — 정답 ④**

사파비는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아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했어요.

**다른 선택지**: ① 공동체가 선택한 칼리프들도 인정하는 입장은 수니파와 연결돼요. ② 사파비는 시아파, 오스만은 수니파를 바탕으로 했어요. ③ 국교는 상인의 거래 규칙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종교예요.

**다시 읽기: Q12**

**확인 16 — 정답 ②**

아바스 1세는 관료 조직과 상비군을 정비하여 사파비 왕조의 중앙 집권을 강화했어요.

**다른 선택지**: ① 이스마일 1세는 사파비를 세운 군주예요. ③ 티무르는 티무르 왕조를 세웠어요. ④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와 사파비의 군주 아바스 1세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대상이에요.

**다시 읽기: Q02, Q07, Q11, Q13**

**확인 17 — 정답 ④**

(가) 이스마일 1세는 1501년에 사파비 왕조를 세웠고, (나) 아바스 1세는 관료 조직과 상비군을 정비했어요.

**다른 선택지**: ① 두 사람의 업적을 뒤바꾸었어요. ② 1370년 건국은 티무르의 업적이고, 시아파 국교 채택은 사파비 건국 때 이스마일 1세와 연결돼요. ③ 술탄 칭호는 셀주크 지배자,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정한 것은 티무르와 연결돼요.

**다시 읽기: Q02, Q07, Q11, Q12, Q13**

**확인 18 — 정답 ②**

(가)는 사마르칸트의 구르에미르로 티무르 왕조의 건축이고, (나)는 이스파한의 이맘 모스크로 사파비 왕조의 건축이에요.

**다른 선택지**: ① 두 도시·왕조의 짝을 사진과 반대로 연결했어요. ③ (가)는 바그다드에 있지 않고 (나)는 티무르 왕조의 건축이 아니에요. ④ (가)는 티무르 왕조의 건축이며 (나)는 바그다드에 있지 않아요.

**다시 읽기: Q09, Q14**

**확인 19 — 정답 ③**

셀주크 튀르크가 11세기 중반에 성장했고, 티무르 왕조는 1370년, 사파비 왕조는 1501년에 세워졌어요. 따라서 ㄷ → ㄴ → ㄱ의 순서예요.

**다른 선택지**: ① 가장 늦은 ㄱ을 처음에 놓았어요. ② ㄴ보다 ㄷ이 먼저예요. ④ ㄱ보다 ㄴ이 먼저예요.

**다시 읽기: Q02, Q07, Q11, Q16**

**확인 20 — 정답 ①**

세 왕조는 이슬람교와 교역로로 연결되었지만, 시기·지역·통치의 전통에 차이가 있었어요.

**다른 선택지**: ② 셀주크와 티무르는 서로 다른 세력이 세운 왕조예요. ③ 1370년 티무르 건국이 1501년 사파비 건국보다 먼저예요. ④ 티무르는 몽골 제국, 사파비는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을 내세웠어요.

**다시 읽기: Q16**

**확인 21 — 정답 ㄱ 칼리프 / ㄴ 술탄**

셀주크 성장기에는 칼리프의 종교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술탄이 정치와 군사의 실권을 행사했어요.

**헷갈리기 쉬운 답**: '샤'는 페르시아 군주의 칭호로, 이 문항의 빈칸에 해당하지 않아요. 또 칼리프가 이슬람 역사의 모든 시기에 종교만 담당했다고 일반화하면 안 돼요.

**다시 읽기: Q03, Q11**

### 확인 22 — 정답 ㄱ 사마르칸트 / ㄴ 이스파한

사마르칸트는 티무르 왕조의 수도이고, 이스파한은 아바스 1세가 옮긴 사파비 왕조의 수도예요. 두 도시는 교역과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했어요.

**헷갈리기 쉬운 답**: 바그다드는 셀주크의 지배자가 점령한 아바스 왕조의 수도와 연결해 기억하세요. 두 빈칸의 답은 아니에요.

**다시 읽기: Q02, Q07, Q14**

## 확인 23 — 예시 답안

칼리프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통치를 사람들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군사력은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고, 통치를 인정받는 것은 사람들이 그 지배자를 받아들이게 하는 일이에요. 술탄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군사력에 더해 칼리프의 권위도 통치를 뒷받침할 수 있었어요.

**채점 기준**: ① 칼리프의 종교적 권위를 언급하고, ② 그 권위가 술탄 자신의 통치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관계를 설명하면 돼요. 표현이 달라도 두 요소가 있으면 정답이에요.

**부족한 답**: '더 넓은 땅을 얻으려고'만 쓰면 칼리프에게 지위를 인정받는 의미가 드러나지 않아요. '군사력을 모두 칼리프에게 넘기려고'는 실권을 행사한 술탄의 역할과 맞지 않아요.

**다시 읽기: Q02, Q03**

## 확인 24 — 예시 답안

관료 조직을 정비하면 중앙에서 세금과 행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상비군을 기르면 지방 세력의 군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군주가 직접 군대를 움직이는 힘을 키울 수 있다.

행정을 맡는 조직과 군사력을 중앙의 지배자 아래에 갖추는 일은 군주의 통치력을 강화해요. 그래서 두 정책을 중앙 집권과 연결할 수 있어요.

**채점 기준**: ① 관료 조직과 중앙의 행정 관리, ② 상비군과 군주의 군사력 확보를 각각 연결하면 돼요. 둘 중 하나만 설명한 경우에는 나머지 측면을 보충해야 해요.

**부족한 답**: '나라가 강해진다'만 쓰면 두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지 드러나지 않아요. '상비군이 전쟁 때에만 잠시 모이는 군대다'라는 설명도 틀려요.

**다시 읽기: Q13**

## 정리 지도 정답

| 도시 | 빈칸 정답 |
| --- | --- |
| **바그다드** | 셀주크 튀르크 / 술탄 / 칼리프 |
| **사마르칸트** | 티무르 왕조 / 티무르 / 중계 무역 |
| **이스파한** | 사파비 왕조 / 이스마일 1세 / 아바스 1세 / 시아파 |

# 이미지 출처

외부 사진·초상·참고 지도는 아래 각 이용 조건을 따릅니다. 표지의 재배포 제한 안내는 이 외부 자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그림 | 자료 | 저작자 | 이용 조건 |
|---|---|---|---|
| **〈인물 1〉** | 티무르 초상 (『자파르나마』, 1436) | 작자 미상 | 퍼블릭 도메인 |
| **〈인물 2〉, 확인 17** | 이스마일 1세 초상 (1552~1568) | Cristofano dell'Altissimo | 퍼블릭 도메인 |
| **〈인물 2〉, 확인 17** | 아바스 1세 초상 (1617년경) | Bishandas(추정) | 퍼블릭 도메인 |
| **〈유적 1〉, 〈유적 비교〉, 확인 18** | 사마르칸트 구르에미르 사진 | Bgag | CC0 |
| **〈유적 비교〉, 확인 18** | 이스파한 이맘 모스크 사진 | Patrick Ringgenberg | CC BY-SA 3.0 |
| **〈지도 2〉** | 셀주크 영역 참고 지도 | Ktrinko · MapMaster | CC BY-SA 4.0 |
| **〈지도 3·4〉, 확인 09** | 티무르 영역 참고 지도 | HetmanTheResearcher | CC BY 4.0 |
| **〈지도 4〉, 확인 09** | 사파비 영역 참고 지도 | Ro4444 · HistoryofIran | CC BY-SA 4.0 |
| **모든 지도** | 바탕 지도(국경·해안선) | Natural Earth | 퍼블릭 도메인 |

〈지도 2·3·4〉와 확인 09 자료는 위 참고 지도를 대조하여 대치동 재우쌤이 새로 그린 학습용 지도이며, CC BY-SA 4.0으로 제공합니다.

원본 주소: commons.wikimedia.org — Portrait_of_Timur_(d.1405)…1436_Zafarnama.jpg / Portrait_of_Shah_Ismail_I…dell'Altissimo.jpg / Portrait_of_Shah_‘Abbas_I…Bishandas,_circa_1617.jpg / Gur-e_Amir_01.jpg / Isfahan_Royal_Mosque_general.JPG / Map_of_the_Seljuk_Empire_(1092).png / Empire_of_Timur_and_his_Campaigns.png / Map_of_Safavid_Iran_under_Shah_Abbas_the_Great,_1588–1629.svg · naturalearthdata.com